

# 어느 어설플 논객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그동안 대통령만 해도 모두 열 명이나 겪었다. 그 긴 세월을 어찌 버티며 여기까지 왔을까. 분명명한 것은 한시도 해탈하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것이다.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이었으니 햇수로 45년. 거의 반세기를 기자로 살아온 셈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호남 지역 최장수 언론인'의 타이틀을 얻은 것 같긴 하다.

하나 돌아보니 순탄한 세월만은 아니었다. 뜻하지 않은 시련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고초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5·18은 '꽃내기 기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사건이었다. 그때 만났던 여고생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시위대에 여고생까지 참여' - 당연히 인적 사항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이름은 왜 물어요? 그리고요 기자예요?" 여학생의 그 말은 이후 나를 계속 괴롭혔다. "나는 과연 기자인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광주 엠비시가 불타던 그 날 밤도 잊지 못한다. 어둠이 깔린 골목에서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고꾸라졌다. 공수부대의 곤봉을 맞은 그 청년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흉안과에서 나온 우리(선배기자들과 나)는 슬금슬금 걸어서 단골식당 골방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들리고 말았다. 쫓아온 공수부대원이 식당 아줌마에게 '방금 들어온 젊은이를 내놓으라'고 욕박질했다. 우리는 하릴없이 골방에서 나와 계엄군의 곤봉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태희·나의갑·이흥재 등 전남일보 기자와 박옥재 경향신문 기자, 홍건순 동아일보 기자 등은 취재 과정에서 계엄군한테 진압봉으로 두들겨 맞기도 했다." 당시 함께 취재했던 선배 기자 나의갑은 지난해 펴낸 '전두환의 광주폭동이라니요?'란 책에서 이 같이 기술하고 있다.

책에는 '박관현 묘소 사건'에 대한 간략한 언급도 나온다. "이 사건은 이흥재 기자가 1982년 11월 12일 자 광주일보 '내 고장 주말'이라는 연재물 '불갑산' 편에서 '오른쪽 산허리에 보이는 박관현의 묘소를 뒤로하고'라고 썼다가 기관에 잡혀가 혼났던 사건이다."

## 호남 최장수 기자로 파란만장

그 무렵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관현은 교도소에서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었다. 당국은 박관현의 시신을 탈취해 아무도 모르게 영광 땅에 묻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나는 이를 기사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와 동료 기자는 '정보기관에 끌려가면 배도 못 차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간곡히 만류했다. 무서웠다. 박관현의 이름 뒤에 '열사'는 커녕 '존친' '씨' 자 하나 붙이지 못한 까닭이다.

신문에 기사가 실린 다음날 편집국장이 부르러

니 "전일다방 옆 골목에 손님이와 계시니 만나 보고 오라"고 했다. 김새가 이상했지만 설마 하며 나갔다. "타시지요." 건장한 체구의 사내들이 나를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승용차가 화정동 안기부 정문을 넘어서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야 새끼야. 아까 같이 또 한 번 자때바때해 바라." 승용차 뒷좌석에서 수사관 두 명 사이에 끼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몸을 뒤로 쫓았던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자때바때'로 비쳤던 모양이었다.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말리진 건 없었다. 당시엔 나를 기관에 순순히 내준 편집국장이 많이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이해는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전두환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아무튼 그곳에서 곤욕을 치른 뒤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천하게 지냈던 동료 기자 한 명이 백로지에 적힌 장문의 시 한 편을 내게 건네주었다. 내가 기관에 끌려가 있는 동안 괴로운 심정으로 밤새 통증을 하며 쓴 시라고 했다.

"내 친구는 갔다/ 내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당당히 갔고/ 나는 계속 취하고 있다/ 친구여 내가 아침부터 취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맞는 책의 맛으로 알아 다오/ 친구여 많이 맞아라/ 맞고 침묵의 분노 방정 찍어라" <당시 한승주 기자의 시 중 일부>

나는 그의 말대로 한동안 침묵의 분노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 2년쯤 지나 용기를 내서 나도 시 한 편을 끄적거리 보았다. 여전히 무서웠지

만 그들이 '시를 어찌 알라' 하는 생각에 사보(社報)에 기고하는 만용까지 부렸다.

"내가 기자나 허허/ 기는 것이 기자다 허허 허허/ 이제는 거둬야 할/ 저 허허로운 웃음, 처절한 미소/ 이제는 되찾아야 할 빼앗긴 자존(自尊)// 심장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화정동 고개 넘어고 또 넘어/ 닳고 닳은 발부리 부르터져도/ 정의의 불꽃이야 문드러질까" <졸시 '우리들의 꽃' 중 일부>

## 불면의 밤 많았지만 행복했다

생각해 보니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정보기관과 세 번이나 악연을 맺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 독재 시절 농촌의 피폐한 모습을 토포(譏諷)하게 묘사했다가 연재물이 중단되었던 사건이다. 북한을 이름게 했다는 죄목(?)이었다. 두 번째는 '해방신학' 강연회 취재를 저지당한 사건이다. 나중에 들어 보니 경찰은 내가 만세를 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안기부에 일러바쳤다고 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박관현 사건'인데, 나는 내근기로 좌천되고 당시 부국장(허광욱) 역시 문제의 기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당했다. 참 억울한 세월이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시련은 계속됐다. 특종을 해 놓고도 정치 권력에 의해 소송을 당해 2년 가까이 망고생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럼을 쓰면서는 늘 행복했다. 물론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이 많았다. 하지만 칼럼이 나가고 나서는 뿌듯했으니 수많은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문자나 전화로, 또 누군가는 손편지까지 보내 주며 과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이는 내 칼럼이 나오면 복사를 한 뒤 코팅까지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했다. 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독자도 있었다. 그 만큼 감동했다는 뜻일 터이니 최고의 상찬(賞讚)이 아닐 수 없다. 모두 얼굴도 모르는 독자들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나는 '어설플 논객'이었다. '익크가 아닌 피로써 글을 쓰는' (니체) 뛰어난 논객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정연한 논리를 펴는 날카로운 논객이 되기에는 너무나 자질이 부족했다. 이를 일찍이 자각한 나는 그저 독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칼럼테이너' (columnist+entertainer)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글쓰기 3대 원칙'만은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첫째, 쉽게 쓰고 둘째, 재미있게 쓰며 셋째, 반드시 약간의 지식과 정보를 곁들인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재미'는 내가 가장 중요시한 요소였다. 물론 꼭 써야 할 그때그때의 이슈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쓴 크고 작은 칼럼이 총 1000편도 넘지 않아 보인다. 예로 읽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오랜 세월 기자여서 참 행복했다. 돌아보니 내 비록 한평생 고통받은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제법 치열하게는 살아온 것 같다. 다행히도 권력의 억압에 굴하지 않았고 금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할 것인가? 안 한다. 왜? 너무 힘드니까.

# “민선 7기 남은 기간 시정 최우선 가치는 안전·성장·공정”

## 이용섭 시장 월간 정례회 우크라 피해 대책 마련 주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안전, 성장, 공정을 민선 7기 남은 4개월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월간 정례회에서 "안전은 시정 제1 가치"라면서 "개편된 자율책임 중심 방역·의료 체계에서 시민이 불편,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고 새 학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지난주 발표한 부실 공사 척결 종합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거듭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성장이 멈춘 도시는 사람이 떠나고 황폐화한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광주는 빛고를 스마트 메가시티, 영산강 광역경제·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광주·전남 통합, 달빛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통한 초광역 신남부 경제권 구축 등 양적 성장의 의미 등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 모두가 성장의 성과를 고르

게 향유해 성장-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공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는 그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며 "러시아 침공을 반대하는 뜻을 담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가족을 둔 채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이 1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수출, 대금 회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직접 수출을 하고있는 광주지역 기업체가 87곳에 이른다"며 "이번 사태로 수출 차질과 대금회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전통생활음악 전문공연장 조성 박차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용역 착수...문화예술인 숙원 해결

광주시가 전통생활음악 전문공연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전통 생활 음악 전문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건립 개요, 기초조사 분석, 기본구상, 추진일정 등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전통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하고 판소리, 농악 등의 생활음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전통음악공연을 위한 전문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지역특화 기반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활동을 통해 연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까지 용역을 통해 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건립 타당성 확보 등 건립 방안을 마련하기

로 했다. 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300~1000석 규모 중형 공연장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에는 현재 공연장 41곳이 등록돼 있으며, 공공공연장은 7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 수준이다.

특히 중(형)공연장 객석수는 5787석으로 특별광역시 평균 1만2441석의 43.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객석수 1000석이 넘는 대형공연장은 광주 시문화예술회관대극장 한 곳으로, 대형·전문 공연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전통생활음악 전문공연장은 문화예술인의 숙원 사업으로, 이번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설계비를 내년 국비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단 기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10억원 이상**  
하실분. 010-3605-5000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룸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옹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음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 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희플러스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화순군 공고 제2022-296 호  
**화순 군관리계획**  
**(주차장,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화순군 군관리계획(주차장,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3.  
**화순 군수**

- 1. 주요 내용**  
가.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및 세량리 252-2번지 일원 백야면 서유리 산23번지 및 동북면 안성리 57번지 일원 이서면 도석리 산87번지 및 영평리 918번지 일원  
나. 시 설 명 : 공영주차장, 세량제공원, 백야-이서-독재배수지, 이서접합정다. 변경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배수지, 접합정 신규 설치에 따른 군계획시설과 세량지 방문객의 힐링공간 확장을 위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화순군청 재무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과
- 3. 관련도서 및 도면 :** 재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4.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공공건축팀 (061-370-3357),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팀 (061-379-3853), 도시과 도시행정팀 (061-379-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